



協會의 發展進路, 그 方向을 얘기한다

일 시 : 1984년 11월16일

장 소 : 본협회 회의실

사 회 : 오웅석 · 회 장

참석자 : 김지태 · 前회장

김기수 · 부회장

윤봉원 · 前이사

이용하 · 前이사

김인석 · 前이사

박흥우 · 前감사

이준상 · 前감사

유경철 · 이 사

이영희 · 이 사

한중언 · 이 사

임재식 · 이 사

신정환 · 이 사

김재우 · 이 사

김봉훈 · 이 사

이강식 · 감 사

류근열 · 감 사

임인혁 · 사무처장

지난 11월16일 본協會 회의실에서 會長 離就任式 거행후 약 2시간에 걸쳐 新·旧任 員 連席下에 協會의 運營發展을 위한 懇談會를 가졌다. 協會의 實態를 診脈하며 앞으 로의 運營像을 浮彫해 낸 이날의 허심탄회한 懇談會議錄을 정리, 여러분에게 소개한다.

會 長 : 그동안 협회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전임 임원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임원들께서 인계해 주시는 사업에 대한 지도편달과 또 이런점은 이런 방향으로 끝나갔으면 좋겠다 하는점, 기타 협회발전을 위한 신임임원에 대한 요망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전임 김지태회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계속해서 완성해 주었으면 좋 겠다 하는 점 또는 국제교류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오셨는데 이번 마닐라 아카시아 대회에 다녀오신 여러가지 성과, 내용 등 앞으로의 생각이 많으 시리라 믿는데 그러한 점들을 말씀해 주시죠.

會 長 : 전임 임원들께서 인계해 주시는
사업에 대한 지도편달과, 또 앞으로
협회를 이런 방향으로 끌어나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점 등을 허
심탄회하게……

김지태 :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동안 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또 국제교류문제 등 제가
씨는 뿌려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거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렇게 보고 있습니다.

2년동안 저와 함께 수고 해주신 임원님들도 그런 점에서 몸은 비록 떠나지만 마
음은 앞으로의 협회발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당부드릴 것이 있다면 첫째 단결이 형성되어 단합된 힘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그렇지 못하고서는 어떤일이나 결실을 보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
각입니다.

두번째는 협회를 끌고 나가는 임원들께서는 회원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
들께 봉사하는 입장이라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마닐라에서 열렸던 제 1 회 건축사회의에 대하여 먼저 배경설명을 하자면 82년 2
월 구유회 회장 재임시 구회장님과 함께 우리도 좀 커보자. 우리도 국내에서만 이
렇게 아니라 밖의 사정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우리도 이젠 밖의 사정에 머리를
들려야 될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되어 동남아를 중심으로 5 개국을
순방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닐라대회 참석의 계기가 되었다 하겠읍니다.

동남아에는 건축과 관련한 기구가 UIA 제 4 지구 말고 아카시아회의 즉 동남아건
축사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원국 수는 82년까지는 10개국이었고 이번에 중공
대만이 가입해서 12개국이 되었습니다. 또 읍서버로 참석한 4 개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UIA 제 4 지구 총회가 필리핀에서 열렸는데 필리핀에는 UAP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사 연합회인데 필리핀 자체에 단체가 3 개 있었습니다. 2,3
개 단체가 10년에 걸쳐 통합, 78년에 단일체가 된것인데 그 통합단체가 UAP 이
고 UAP가 주관하여 아카시아 회의를 주관한 것입니다. 아카시아 회원국들
은 영어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홍콩, 태국, 방글라데
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거기에
영어생활권이 아닌 중공과 대만이 최근에 가입이 됐읍니다.

우리도 회의의 성격이라든지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것인지 없는 것인지 파악코
져 서베이좀 해보자 해서 가보니까 12개국이 참가한 중에 우리인원이 제일 많았
읍니다. 家협회 3명 士협회 19명, 총 22명이 참석하다보니 주목의 대상이 되 어
KOREA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읍니다. 김지덕회원께서 주제발표회 등 연구위원
회에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으니 한국에서 간 분들은 회의
에 참석해달라, 회의가 어떤 것인가 대강은 파악했으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는 회의에 나가봐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우리 회원들이 회의에 나가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회의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김지태 :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국제 교류문제 등 씨는 뿌려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거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런 점에서도 앞으로는 국제교류를 활발히 가져야 되겠다고 느꼈고, 따라서 협회로서는 (아카시아)에는 가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년 11월에 이사국회의가 있는데 뚝회장께서 가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자부하는 탓인지 가입은 하지 않지만 정보는 모두 입수해 가더군요.

會 長 : 이번에 같이 참석해주신 류근열감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류근열 : 어학실력도 없고해서 분과위원회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총론적으로 느낌을 말씀드리면 국민소득이 8백불로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나라가 아닌데도 그나라 건축사의 사회적인 지위는 대단히 높았다는 것을 느꼈고 회의장 자체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통령과 대통령부인의 뗏세지도 있었습니다. 또 그분들의 짜임새 있는 회의진행을 보고 과연 우리 건축사들은 무엇을 했느냐, 우리도 밖으로 눈을 돌려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 또 느낀점은 대표단 구성에 있어서는 어학실력이 앞으로는 고려되어야 하겠다는 점이었습니다.

會 長 : 앞으로 계속 국제회의는 추진해 나가야 되겠고, 얼굴색이 다르고, 문화권이 다른 동남아 주최의 모임이라든가 중공, 일본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서 다른 나라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회의개최지를 우리나라로 유치해 온다든가 하는 자세로 진지하게 의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지태 : 家협회, 士협회를 구분하여 의식하면 안되겠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한국을 대표한다는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家협회 김정철 부회장께서도, 아시아건축사대회 좌담회에 참석하시어 家협회 士협회 구분하지 말고 국가적 대외 행사에서는 보조를 맞춰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듯이 단합해서 한국을 대표해야 되겠습니다.

會 長 : 법 보완개선 문제는 우리협회에서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점이 보완 개선되어야 할것인가가 우리 협회의 중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기수 부회장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 개정문제와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 과제를 말씀해 주시죠.

김기수 : 士法개정에 대해서는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진행상태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김기수 : ...물론 이제까지 전진해온 바톤을 받는 것이지만, 보다 전진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우리 협회 운영이 회원을 위한 길이고

77

많은 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름대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방향, 그 통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현시점에서 약 15일 전까지도 법안처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상정될 안건은 당정 협의가 끝나 9월20일 이전에 국회에 접수되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에서 예상못했던 변수들이 자꾸나타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애쓴 결과 한 20일 동안에 경제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당정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그 여러 경로를 신속하게 통과한 것에 대해 다른 분들은 관계관들도 그 예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행운의 여신이 우리에게 손짓해 주었고 미소를 던져 주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조직력, 우리 협회의 운영방식, 우리 임원님들의 활동, 우리 회원의 관심, 이런 것들이 총 집약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협회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건설부 국장께서 직접 일선에 나서고 계십니다. 법제처를 비롯하여 관계기관에 직접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와대의 최종 재가를 받아 하루 빨리 국회에 접수시켜 건설위원회의 법안심의 일정에 포함시켜야 되겠고 11대 국회 마무리로서 이 열매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부족한것은 우리의 힘으로 점차 보완해 나가야되고 또 개선해 나가야됩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 내용은 그대로 통과시켜 한발 한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길로 걸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 물론 이제까지 전진해온 바톤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지만은 보다 전진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우리협회 운영이 회원을 위한 길이고, 회원이 협회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원들께서 늘 협회는 무엇을 하느냐 하지만 회원들의 활동 그 자체가 협회활동이고 협회활동이 회원활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체에 건축사법 뿐만아니라 건축법에 대한 것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야겠다는 분위기가 지금 행정부 내에서 일고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 외국의 건축법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 건축법과 대조, 비교 연구를 해 달라는 의뢰를 제가 받았읍니다. 이런거야 우리들이 해야되지요. 빠른 시일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안이나 제도개선안은 우리협회가 주동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구하여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일이든 우리가 주인의식으로 해나가면 어려운 것 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윤봉원 : 새 임원들과 회장님께서서는 앞으로의 일이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土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시행령·규칙마련까지 필요한 정답을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해결한 여러 일들, 표준설계도서문제, 종합건설업 면허제도문제, 기타 조그만 일들이 눈에 크게 띄지는 않는 일이지만, 만약 그것을 해결못했다고 가정한다면 사태의 심각성은 엄청나게 커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다행히 선의의 협조에 의해서 잘 해결되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土法은 어떻게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되겠고 그 통과된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 저희들 자세도 또한번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각 임원들께서 혼연일체가 되고 조직적으로, 지성적으로, 전략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會 長 : 법 개정애 가장 수고가 많으셨던 법 분과위원회 윤봉원이사께서 소감과 앞으로의 바람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윤봉원 :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부연한다면 부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때때로 적은것 같지만 실제 실무자들은 굉장한 노고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느낀점을 말씀드린다면 협회가 총력사업으로 선정한 일이라면 예산 범위내에서만 떨어는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고 정책적이고 집약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기 위한 시스템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法이 그정도까지 간 것은 어느 한사람의 힘이 아니고 협회의 집약적인 힘이 작용한 결과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특히 부회장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며 연결을 짓는다고 노고가 크셨지만 그 외에도 사무처장께서는 실무자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심부름을 했습니다.

이제 새 임원들과 회장님께서서는 앞으로의 일이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土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시행령 규칙마련까지 필요한 정답을 우리가 내주어야 합니다. 지금 案이 통과됐다고 해도 만족할 案은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보따리를 늦추지 말고 정확히 만들어 주어야 우리에게 유익한 법이되는 것이지 국회에 통과됐다고해서 그것만을 믿고 있다가는 우리의 목적달성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법에 관해서 뿐만아니라, 우리협회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입안하여 그 기초위에서 맥락이 통하는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2년을 마치고 저희들이 지난날을 돌아보면, 전임 임원들이 추진하고 계획했던 것은 전부 백지화하고 새로 출발하곤 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이리다보니 협회는 큰 발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과위원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협회가 할일의 예산규모를 보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 타당한 예산만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집약사업계획이 별도로 작

이용하 : 협회 직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그 업무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성되어 예산의 민받침하에 이를 밀고나가야 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會長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부족한 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보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점점 규제화 되어가는 방향을 자율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신입 회장으로 여러가지 방침을 공표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크게 두드러진 문제는 연합회 제도를 연구해 나가고 절충안으로 지방예산 병행문제를 검토하여 실시해 보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위시해서 여러가지 제가 말씀드린 방침에 대한 비판, 분석, 또 그러한 문제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주시고 특히 과거에 재임기간 중에 느끼셨던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 : 회장님께서 의욕에찬 여러가지 정책발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 생각도 그 일부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기로 합니다. 다만 2년동안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협회 직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그 업무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협회로 봐서 사무처일로 봐서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인석 : 그동안 협회 이사로서 협회를 위해 도운일도 없고 도움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협회를 잘 몰랐지만 이제 2년을 끝내며 협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전의 저와 같은 경우처럼 일부 회원은 협회자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협회는 임직원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회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협회존재라든가 건축사의 존재를 인식시켜야 할 때인데 회원이 협회 자체를 모른다니 문제입니다. 이런점에서 협회에서 하는 일 자체를 회원에게 인식시켜 주는것도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도 협회를 잘못알면 오해도 생기겠고...이러니 협회에서는 앞으로 회원에게 협회에서 하는일과 협회 운영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께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것을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전달을 하는 등 상호간의 흐름에 막힘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회원은 또한 협회를 아끼고 위하며 협회도 회원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고,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으로 건축사 지위도 높아지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떠나는 마당에

김인석 : 일부 회원은 협회 자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협회에서 하는 일 자체를 회원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도 큰 과제라고……

여러가지로 저는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홍우 :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 직접 느낀 것은 감사직을 통해 보고드린바 있고 빠진 것이 있다면, 지방을 4회 순회하면서 느낀점인데 복지회 관계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문제와 협회와의 문제는 계속 연구하고 정비해나가야 옳은 방향을 잡을 수 있을게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분소문제입니다. 지금 수십개의 분소가 있는데 과감히 통폐합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원의 편의를 위해서 분소를 둔다면 무진장 두어도 되겠지만 위계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통폐합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점이 계속 야기되리라고 보입니다. 또 한가지 후임 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감사는 사무정리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1년에 두번의 감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게 되어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실지로 감사하는 시간은 20~25일 밖에 되지는 않지만 왔다갔다 하는 기일까지 총 45일을 써야합니다. 감사 두번에 또 이사회까지 합하면 일년에 꼬박 3개월은 협회에 바쳐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다보면, 예를 들어 10월말에 감사가 끝나면 신년초 2월쯤에 또 감사를 나가게 되는데 어떤 지부는 3,4개월만에 감사를 또 받게 되는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사로서의 감사는 일년에 한번으로 줄이고 나머지 한번은 사무처 기획실에서 했으면 합니다. 감사도 결국은 건축사인데 자기일 제쳐두고 1년에 3개월을 바쳐야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會 長 :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 이춘상 감사께서 말씀해주시죠.

이춘상 : 저는 협회 임원을 두번 했습니다. 그 때에도 건축사법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土法 개정을 볼 때 여러 임원과 회원께서 힘을 합한 성과라고 봅니다. 이를 교훈삼아 앞으로도 이사님과 회장님께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여러 회원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처인사 문제, 그것은 제가 우연치 않게 회원 여러분의 의사를 들은적이 있는데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바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회장님께서 회원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 드립니다.

會 長 : 누군가 회의 진행을 하여야 할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음 유경철

박홍우 : 감사는 사무정리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건축사로서의 감사는 1년에 한번으로 줄이고 나머지 한번은 사무처 기획실에서 했으면...

이사께서 말씀해주시죠.

유경철 : 임기가 끝난 이사님들 중 세분께서 임기가 짧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봉원이사께서는 사업을 한창 벌였는데 계속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 하셨고 김인석이사께서는 이제 좀 알려고 하는데 나가라고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고 저도 1년이면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 저는 협회창설이래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았던 시대가 또 있었느냐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가시는분 들어오시는분 서로가 출신학교도 다른데 신·구회장님간에 인수인계가 이렇게 깨끗이 된적도 없을것 같습니다. 욕심같아서는, 새회장님께서 제도적으로 새로운 상임 위원회 발족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전임김지태 회장님께서 회장 3년 하는 기본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사 數가 모자랍니다. 저도 건축위원장을 하다보니 그렇고 또 다른 이사들도 각 분과위원장을 맡아보니 그렇고한데 이사님들께서는 이사 3년하는 기본으로 1년 더 봉사하고 건축위원회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모처럼 원숙해져가는 士협회 무드를 계속적인 봉사로 고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도 내년에 임기 끝나고 1년 더 봉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會 長 : 이영희 이사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또 지나온 1년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영희 : 신임 오회장께서는 의욕에찬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100% 성취에 노력을 해야 될줄로 믿습니다만 모든 임원이 일체가 되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겠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영향력있는 분들을 초빙하여야 됩니다. 역대 회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문위원이 아니라 협회 현안 문제를 능률적으로 타결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종연 : 전임, 후임 이사님들께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것은 없지만 그동안 저는 서울지부에서 감사 1년했고 본회 이사 1년을 했습니다. 이제는 뭔가 좀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임회장님 모시고 강도있게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알았다는 얘기죠. 그동안 보니까 협회가 일처리하는 방식이 사후약방문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적어도 협회와 관련부서는 정기적인 간담회 내지는 한달에 한번 정도 아니면 두달에 한번정도라도 간담회나 아니면 막말로 소주라도 마시며 실질적으로 관계를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뛰어가야 얼굴이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이야기가 안된다. 이런 사태

이춘상 : 사무처 인사문제—— 그것은 제가 우연치않게 회원 여러분의 의사를 들은 적이 있는데 회원 여러분께서도 바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가 생겨서는 안되겠기에 그렇습니다. 대외관계는 거의 부회장께서 혼자하고 계신데 이래서는 안되겠고 모든일은 임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사들도 뛰어야 됩니다. 이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또 협회예산상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것은 이사들 주머니에서 엽출하여서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때, 바쁘면 전화라도해서 이런문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표준주택설계관계—— 그것도 정보가 너무 늦었습니다. 과거에 관계되는 사람들과 접촉이 없었던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협회와 관련있는 부서간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會 長 : 다음 임재식이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임재식 : 선배 이사님 회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會 長 : 말씀하시는데 부담가지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환 : 건축사회원의 평균 연령을 47세로 알고있는데 65세 이상이 됐을때 회원의 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부총회에서 어떤 회원이, 회장마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 임기가 끝나면 오리발을 내민다 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말은바 임무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會 長 : 저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지태 : 복지문제 만큼은 협회차원에서 충분히 정책적으로 연구해 보아야 됩니다.

會 長 : 김재우이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재우 : 오늘 저는 신입생이라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난 총회를 보면 사업계획은 거창하게 늘어놓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연말 분석이라든지 평가는 내놓지 않는다고 회원들이 아쉬워 합니다.

또 제가 참석해봐도 그런것 같습니다. 신임 회장께서는 새로운 전통을 살려서 취임시 공표했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총회시 평가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실질적으로 협회는 협회대리고 회원은 회원대로 입니다. 제가 대구

유경철 : 이사님들께서는 이사 3년 하는
기분으로 1년 더 봉사하시고, 건
축위원회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
고, 모처럼 원숙해져가는 士 협회
분위기를...

지부장을 지낼때 회원과 협회와의 간격을 좁히려고, 또 회원에게 협회돌아가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등산이나 낚시같은 취미클럽을 만들어 전회원
이 한달에 두번 이상은 모이게 하였던니 상호간에 융화단결도 되고 해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른 지부에서도 여건조성을 위해 취미클럽을 조직했으면 합니다.

김봉훈 : 저는 士협본부에 대의원 과정도 밟지 않고 바로 이사로 선임이 되어서 벼락부자
가된 느낌이 들어서 아직도 기분이 얼떨떨 합니다.
여러 선배님 이사님 말씀 잘 새겨 듣고 신임 오회장님 모시고 사협회를 위해 열
심히 뛰겠습니다.

會 長 : 이강식 감사님 말씀해주시죠.

이강식 : 제가 느낀점은, 법을 연구한다 하면서 전담이사들이 애를 쓰지만 그것이 정리가
잘 되지를 앓는다는 점인데 자기일도 바쁘게 전담이사가 할 수도 없는것이고, 오
회장님께서 발표했듯이 과감하게 기구를 정리하여 법을 연구한다면 현 직원을 이
용 꼭 그것만 취급하는 전문적이 있었으면 합니다.

會 長 : 류근열 감사께서 공약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또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류근열 : 감사직은 너무 생소합니다만 선배 박홍우 감사에게 지부장직도 인계받고 감사직
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 아는것은 없지만 선배 감사가 가까이 있기때문에 배워
가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스스로는 마음 든든하게 생각이되고 열심히 해 볼려
고 합니다.

신임 회장님께서는 당선인사시 10여가지 공약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동안의 짧은 임기동안 회원이 갈망하고 있는 어려운 여러가지 사항을 전
반적으로 완수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과연 할 수 있을것인가 하는 의문도 제
나름대로 가져보았지만 저야 감사직에서 얼마나 회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할지 지
켜 보겠습니다. 감사 입장에서 지켜보고 감사직에서 회장님 업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협조는 아끼지 않겠습니다.

회 장 : 각분과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말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태 : 마닐라 회의에서 보니까 건축사들이 커다란 메달을 목에걸고 나왔는데 픽 보기가
좋았습니다. 색깔도 서로 다르고, 그곳 건축사들이 마크를 달고 건축사의 긍지를

이영희 : 앞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겠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을 초빙하여 협회 현안을 능률적으로 타개해 나갈 수 있어야...

한껏 과시하는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그런것 한번 발전적으로 추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會 長 : 지금 말씀중에 마크 말씀이 있어 생각이 났는데 우리 배지라든가 건축사협회 심볼마크가 공무원 마크와 유사해서 도안을 공모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 동 : 좋습니다.

김재우 : 士法개정과 함께 바꾸면 좋겠습니다.

會 長 : 임인혁처장께서도 의견이나 개선하고 싶은 내용, 업무진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임인혁 :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 직원의 뒷받침은 회장님이하 임원님들이 되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낮이나 밤이나 일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있습니다만 그후에 뒷받침에 대한 책임을 전임원이 저주시는 것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일은 회장님의 의도와 이사회 결정 두가지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때로는 대외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것 같습니다. 물론 심사숙고해서 대화를 나누고 하지만 그 대화내용에 협회 방침이 담겨지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조심도 해야되고 협회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고 답을 해야되는 이러한 상당히 중요한 위치가 저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용히 타일러주시고 외부에 내부 사항을 전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전에는 그런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이사회가 끝난 다음날 밖으로 소문이나 알려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원님들께 부탁올리는데 이사회내용에, 협회 기밀사항이 없더라도 술자리를 같이한다든지 친분 관계에 있는 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 화제로 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잘못되면 직원들 잘못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이런문제는 임원님들이 자진해서 <대외秘>라는 룰을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절대로 새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중요한 기밀은 아닙니다만 평범한 기밀이라도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중언 : 그동안 보니까 협회가 일 처리하는 방식이 사후약방문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적어도 협회는 관련부서와 실질적으로 관계를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會 長 :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말씀해 주시죠.

이준상 : 협회 감사업무를 보면서 느낀것인데, 이제는 서울회원만도 천여명에 가까워졌고, 제가 접촉한 회원도 몇 백 명은 될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머리는 큰데 회원으로서 마땅히 협회에 대해 알아야할 사항이 저 끝까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지도 제대로 보지 않는 회원도 많습니다. 저희 회지에 협회기사도 많이 나가는데 내용을 읽지를 않으니 협회사정에 어두워 그저 다른내용의 말씀이나 불평불만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일반사회적인 홍보도 필요하지만 회원들에대한 홍보관계도 신경좀 써야할 것 같습니다. 또 정화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사무실문제도 정리하여야 할것은 정리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회원의 좋은 보호해주고 잘못된점은 제거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저 <좋은건 좋은거다> 생각하지말고, 저희는 다못한것이 많지만은 신임회장 및 임원들께서 그런점들을 많이 참작 해주시고 일할때에는 과감히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會 長 : 임재식이사께서는 말씀을 조금 밖에 안하셨는데 느끼시는 점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식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회가 크기는 큰데 하는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명년이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적어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을 하게 되면 차기 국회의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그런정도로 파워가 있어야 하지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법개정 하나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중에 저희 회원이 한분도 없기때문에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장은 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장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제가 2년동안 지부장을 하면서 느낀것은 官하고 아주 밀착되어서 우리 의도대로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사회적으로 성장을 하기위해서는 정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 임원들이 단합을 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단합을 하기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한중언 : 신구 임원 말씀중에 사무처에 너무 업무가 많다, 고생을 한다, 따라서 정말 협회에서 꼭 할일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실무진이 많은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그런얘기를 들어야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도서신고업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서신고제도문제는 분소통폐합문

신정환 : 건축사 회원의 평균연령을 47세로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회원의 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제, 지부운영문제, 등과 더불어 협회 능률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번에 회장 임기동안에 도서신고에 소모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협회사무처에서 너무 지나치게 도서신고에 매달리지 않도록 선처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박감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소 도서신고 업무처리의 문제점이 많았다. 이런 문제가 큰 불신의 원인이지 않나 하는데 그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진짜 협회에서 해야할 큰일에 쓸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會 長 : 제도개선은 이번에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신고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소신입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명분을 찾아야 되겠기에 그렇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사실은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예총회장을 만나서 그러한 의논을 했는데 예총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답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중 설계도서신고는 저작권 보호라는 맥락에서 무언가 형체를 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서신고를 하기위해서는 그 무거운것을 가지고와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그 도장찍어주는데에 인력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간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철 : 회장 이하 임원들이 구호만 내세우고 용두사미가되면 안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사에서 밝혔듯이 연합체제로서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몇개의 분과위원회를 부활시켜야되겠다는 점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부에있는 8개분과위원회가 실제로는 서울사람들 것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두사람의 지방 위원이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서울 위원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이라든가 대구나 또 다른 시도지부 단위로 볼때 그정도의 위원회는 지방에도 키워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부 밑에 그런 각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본부가 일집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않을것이라고 봅니다. 지부회원들이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미팅도하고 세미나도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런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발전 해나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회장께서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會 長 :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각 지방의 지역사업을 활성화 해나가기 위해서 지방예산을 검토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이것이 전국적인 하나의 협회원칙, 즉 통제라든가 절감원칙 등과 같은 계동에 걸려서 하고싶어도 못하는 것이 현재 지부의 실정입니다만 분과위원회 활동 또한 좋

김재우 : 지난 총회를 보면 사업계획은 거창하게 내놓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年末分析이라든지 평가는 내놓지 않는다고 회원들이 아쉬워합니다.

은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테마로 채택하여 연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봉원 : 우리 건축사협회도 내년이면 창립20년을 맞는데 사실상 대외적으로 홍보 활동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사의 발전은 이렇게 늦어지고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자면 방송가에서 <건축사>라는 직책을 잘 모릅니다. <건축설계사> 그렇게 얘기하죠. 또 작품을 발표할때면 분명히 건축사가 했고 그 아이디어가 건축사한테서 나와서 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건축사는 누구더라는 사실이 표기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전국민에게 건축사가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알려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매체는 TV라고 봅니다. 그 다음이 신문, 잡지, 유관단체 잡지 순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 적극 홍보를 전개하려면 예산에 규정된 홍보비 정도가지고는 안되고 무리할만큼 투자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會長 : 홍보는 적극적인 태도로 해야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대외 홍보문제를 연구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봐서 우리 협회가 TV드라마를 현상공모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 얼마전 제주지부 총회에 참석했었는데 회원이 24명 밖에 안되는 조그만한 도인데도 건축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되어 있다고 한탄하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지부장이나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조그만한 지역에서도 건축사가 무엇을 하고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가나 건축사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 우리 스스로가 보다 더 자세를 달리해야 된다, 강력히 반성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처해있는 현 상황을 보면 건축사지가 각회원에게 돌아 가는데도 건축사지를 읽는 회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건축사지에 회원에게 필요한 협회소식이 다 나가는데도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국토와 건설>이란 잡지가 건설부 협조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잡지가 우리 협회를 통해 7월부터 2000부씩 나가는데도 구독을 위해 신청한 사람은 10%도 안됩니다. 오히려 항의 전화하고 이런책 왜 보내느냐,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된다, 이럽니다. 건축사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실제로 스스로에 대해서는 이처럼 무관심한 편입니다. 여지껏 장시간 회장을 비롯 임원께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가 스스로 고칠것은 고치자,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라는 대외적인, 사회적인 평가나 지위, 명예, 권위를 얻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TV에 우리소식 실리는게 그렇게 쉬운 일인줄 아십니

이강식 : 과감하게 기구를 정리하여 법을 연구한다면 현 직원을 이용, 꼭 그것만 취급하는 전문직이 있었으면 바쁜 이사들의 손도 덜 수 있고...

까? 결코 마음먹은대로 쉽게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엄청난 투자가 밀받침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사무처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려 문제입니다.

매스컴을 탄다는게 결코 쉬운게 아닙니다. 조금전에 한이사께서, 어떤일이 일어나면 쫓아가서 하는 형태가 아니고 미리 터를 닦아 수로를 만들어 놓았다가 물을 넣어야 물이 흘러갈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홍보는 사무처에서는 물론 회원 스스로도 홍보요원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대로 협회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홍보를 전개 함으로써 이 두가 지 홍보활동이 적극 전개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 손질할 때는 홍보에 관련된 항목만큼은 손질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제주도 총회에는 관광개발국장이나왔는데 자기는 총회에서 깨달은 것이 많았다. 건축사 총회에서 건축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됐다. 그전에는 몰랐다, 이렇습니다. 몰랐다고 이야기 하는것은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이야기 입니다. 작년에 대구 전시회에 갔을때 대구 부시장인가요, 국장하고 얘기하기를 건축사들이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아무렇게나 폐쇄 처분이니 자격 정지니 해오면 이제는 함부로 싸인 안해요, 국장 잘 좀 알아서 하시오, 이런말까지 나왔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도 대구 부시장께서 전시회를 참관하고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찬사를 주었고 부산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홍보요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협회와 더불어 다양하게 다변적으로 홍보를 전개하는 가운데 홍보의 힘은 형성되리라고 믿습니다. TV는 확실히 효과가 큼니다. T·V드라마의 사랑과 진실에 나오는 건축사는 사실 건축사로서의 품위나 권위는 없고 낭만의 주인공으로 상징되어 나오고 있더군요. 그러나 우리에게 홍보의 힘이 갖추어지기만 한다면 그런것에도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사무처에 기구, 인력이 많으나 적으나 하는것은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만 부장하나 과장하나 그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얼마나 능력을 발휘해서 일해야 여러분 임원이나 회원들께서 만족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어렵습니다. 너무 사무처만 두둔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상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會 長 :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할 수 있는 기구가 충분히 보충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하 : 며칠전 TV를 보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1명과 임인혁처장, 건축사 2명이 나온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임재식 : 적어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을 하게 되면 차기 국회의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정도의 파워가 있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TV 좌담에 나오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서 보니까 건축사들의 발언이 너무나 건축사 전체를 대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고 또 답변하는 내용이 협회에서 생각하고 있는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메스콤을 통해 무책임하게 사회에 전파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점에서 우리 협회가 어떤 규제를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도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건축물에 대한 사고가 있으면 별안간에 전화가 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회피합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TV출연시는 협회를 대표하는 내용 등은 발언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감리와 설계를 분류를 해야 된다는 등의 개인만의 생각을 마치 대표의견인양 발언하는 것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임인혁 : 방송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방송이 오늘 방영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어제 녹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건설부 건축과로 출입기자가 갔던 모양입니다. 가서 감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된다는데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려고 계획했던 모양인데 가보니까 건축사법개정 때문에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저희 협회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소개를 받고 왔다고 느닷없이 카메라를 들고 협회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회장과 회장님께 보고 드리고 의논한 결과 건축법의 개정 문제는 건설부에서 답변할 일이지 우리 협회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는 그런 내용의 좌담에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그러면은 건축사가 하는 일이 뭐며 건축주가 위반을 하는 내용이 대체로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면 좋으나 그것만 말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것만 말했을 뿐입니다. 거기서 얘기한 것은 건축법상 위법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건물주의 과도한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건축물이 되려면 충분한 예산과 충분한 공사기간이 있어야 뒀에도 불구하고 속칭 집장사 되시는 분들이 적게 돈을 들여서 집을 짓고 빨리 집을 팔겠다는 과도한 욕심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부조리가 생기는 것이다. 라는 골자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다음 건축사로서는 조형창작예술 즉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 건축사가 참여해야 되는 분야의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프로그램을 나중에 보았습니다만 1시간 계획인 모양인데 서울시 건축과장하고 전임 건축과장 하고 대담하는 것을 집에서 까지 촬영한 것인데 감리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녹화가 되었습니다. 대담프로 다음에 일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

임인혁 : 저희 직원들은 낮이나 밤이나 일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만 그 후에 뒷바침에 대한 책임
을 전 임원이 저주시는 것으로 해
주셔야...

서는 각지방 시민까지 동원되었는데 질문을 받은 시민들 즉, 건축주에게 왜 이
집은 준공이 안됐느냐고 물으니까, 건축사 또는 설계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집
을 지었는데 집을 다 짓고나니 집을 허물라고 그런다. 그래서 준공을 보지 못하
고 있다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인것 같았습니다. 이 얘기 다음에 감리와 설 계
를 일부 구분하니까 많은 위법사항발생이 억제되는 것 같다. 100%는 아니지만
많이 억제되어서 앞으로는 감리공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끝
에 마무리 짓는 아나운서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인용되었습니다. 부조
리는 어디까지나 건물주의 과도한 욕심때문이고 또 충분한 비용과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됴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욕심때문에 건축의 부조리가 야기되고 있다, 또
허가내는데에도 번잡하다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용하 : 건축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을 모르는 회원의 발언인것 같습니다.

會 長 : 그날 나왔던 분들의 인선은 우리 협회가 한것이 아닙니다. 아마 임인혁처장도 거
기에 포함되어서 나간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문제가 있으면 사전 테마를 받아
서 그 내용방침을 우리협회에서 의논한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 : 협회에서 그 회원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봉원 : 그러나 그것은 사후약방문입니다. 다시 재론해서 이미 방영된 것이고 가장 중요
한 것은, 앞으로 대외발언은 공식적으로 단일창구화해야 되겠습니다. 계통을 통
해서 언론기관으로부터 질의를 받거나 출연자교섭을 받아야 하겠고 그런 요청을
우리협회에서 받게되면 홍보담당부서라든가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답변을 하든
지 출연을 하든지 해야되겠습니다.

이춘상 : 집행부에서 많이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會 長 : 홍보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는 그곳에서 방침을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한것은 적극 반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
지 여러분께서 신입회장이 의욕적으로 여러가지 방침을 발표했다, 반드시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지만 제가 의욕적으로 발표했다기 보다는 그렇게 해라,
하는 채척질로 알고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제도개선위원회, 자문위원회, 홍보위원회 이러
한 것을 구성해서 실천에 옮겨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류근열 : 신임 회장님께서 10여가지 공약을 하셨는데 2년 동안에 그 어려운 여러가지 사항을 완수하실 수 있을 것인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협조는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12월말이면 회관이 준공이 됩니다. 허가상의 준공, 건물 외관상의 준공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환경정리라든가 사실상 우리가 준공테이프를 끊고 대외 인사들을 초청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봄이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눈오는 겨울에 할 필요없이 내년 3월 하순경 날씨도 좀 풀리고 화창한 때를 택해서 환경정리를 한다음 테이프를 끊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행사는 성대하게 해서 이기회에 대외적인 홍보도하고 우리 건축사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해보고도 싶습니다. 또 회관을 이용한 여러가지 사업도 생각해서 실천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사실은 사무적인 이취임식은 신규임원님 모시고 간략하게 하고 저녁은 물론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외적인 것, 즉 전임회장 전임임원을 모시고 건설부라든가 국회건설위원회라든가 건설 3단체 간부되시는분이나 기타 관계부서에 관계되는 분과 사회인사 이러한 분들은 12월 초에 호텔의 볼룸 같은 곳을 빌려 따로모셔서 성대한 자축연결 망년회를 열어 볼까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면모를 대외적으로 알릴 기회가 또한번 마련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다음, 앞으로는 정계에도 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러한 말씀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부산에 가셔도 들었고 서울지방에서의 모임가운데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로서는 이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앞으로 그런 대열에 뛰어 들 수 있는 기회가 혹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월 자축연에는 그러한 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해볼 생각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개개인을 만나서 우리협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그러한 일을 거론할 수 있는 무드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항상 뒤따라가는 협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임 회장과 전임 이사께서 적극 노력을 하셔서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좀더 노력을 기울여서 앞으로는 견인역할을 하는, 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협회의 운영은 회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임원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오늘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